



‘방망이 폭발’ 진흥, 성남에 콜드승 8강 합류

대통령배 우승팀과 황금사자기 우승팀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휘문고와 광주일고의 대결에서 휘문고가 연승부치기 접전 끝에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장충고는 3-1로 부경고를 제압했고, 진흥고는 성남고를 12-3, 7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쳤다.

◇휘문고 7-6 광주일고
휘문고가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7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을 연장승부치기 끝에 무너뜨리고 7-6으로 승리를 거뒀다.

역전과 재역전의 혈전이 벌어졌다. 휘문고가 2회초 1사 2루에서 패스트볼과 폭투로 먼저 점수를 뽑아냈다.

하지만 4회말 광주일고 유창식이 2사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출루한 뒤 땅볼을 처리하던 3루수 조원빈의 악송구에 홈에 들어오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5회 광주일고가 역전에 성공했다. 박종호가 11구까지 가는 승부끝에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간 뒤 허 일의 3루타가 터지면서 2-1이 됐다.

6회초 휘문고가 곧바로 추격에 들어갔다. 1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유창식이 조용성의 번트 타구를 처리하면서 2루 승부를 택했지만 악송구가 나와 주자-타자 모두 세이프가 됐다. 이어진 1사 만루에서 유창식의 폭투가 나오면서 2-2.

8회 광주일고가 김요셉의 2루타와 1루수의 악송구로 1사 1·3루를 만들었다. 휘문고가 유창식을 고의 사구로 걸러내면서 만루 작전에 들어갔지만 이현동의 2루타가 터졌다. 희생플라이로 5-2까지 달아나면서 경기는 광주일고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믿었던 에이스 유창식이 9회 조용화에게 3루타를 맞은 뒤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다. 1사 1·3루에서 연속 안타를 맞은 유창식은 1루 견제를 하다 악송구를 하는 등 9회에만 3실점을 하면서 5-5 동점을 허용했다.

연장 승부치기에서 휘문고 조용화의 내야안타로 무사 만루, 유창식이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았지만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로 1점을 내줬다. 휘문고는 박민우의 내야안타를 더해 2점을 만들었다.

반면 광주일고는 박종호의 희생번트에 이어 허일의 유격수 앞 땅볼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6-7로 무릎을 꿇었다.

◇장충고 7-1 부경고
우승후보 장충고가 부경고를 7-1로 누르고 8강에 합류했다.

무등기를 통해 전국대회에 데뷔한 장충고 1학년 유재협의 호투가 돋보였다. 전주고와의 1회전에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던 유재협이 선발투수로 출격했다.

1회를 산자범퇴로 막은 유재협이 2회 첫 타자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지만 도루 실패가 나오면서 손쉽게 2회를 마무리했다. 유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와 진흥고의 경기. 3회말 중전안타로 진루한 진흥고의 박인규가 이태호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휘문고, 광주일고에 연장 승부치기 끝 7-6 신승

유재협 호투 장충고, 부경고 꺾고 휘문과 8강전

재협은 6이닝을 1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2회 장충고 선두타자로 나온 신민기가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정도원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다. 송준석의 땅볼로 2사 3루, 황윤호의 땅볼을 처리하던 3루수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었다. 성현기의 안타로 2사 1·3루를 만든 장충고는 투수 보크로 두 번째 점수를 얻어냈다.

5회 장충고의 타선이 폭발했다. 윤경원을 시작으로 세 타자가 연속해서 안타를 때리고 상대 실책을 더해 대거 4점을 뽑으며 승기를 가져갔다.

부경고는 7회 바뀐 투수 윤영삼을 상대로 이정훈의 2루타와 김석환의 적시타를 묶어

1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며 1-7로 패했다.

◇성남고 3-12 진흥고
진흥고가 성남고와의 16강전에서 대회 3호 홈런을 장식한 김도현을 앞세워 12-3,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2회 2사 2·3루의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한 진흥고가 3회말 박인규·이태호의 연속 안타로 1사 1·2루를 만들었다. 김도현의 볼넷으로 만루를 채운 진흥고가 최수빈의 적시타로 먼저 1점을 뽑았다. 양승철의 희생플라이로 2-0을 만든 진흥고는 4회말 상대의 잇단 실책으로 손쉽게 점수를 보냈다.

1사 1·3루, 박인규의 적시타로 1점을 더한 진흥고가 폭투와 김도현의 땅볼로 5-0까지

앞서나갔다. 진흥고가 7-0으로 앞서 있던 6회초 진흥고의 두 번째 투수 양승철이 두 타자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냈다. 몸에 맞는 볼까지 허용하며 무사 만루,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지만 다시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7-1이 됐다. 뒤늦게 득점에 성공한 성남고는 김선군의 희생플라이와 1루수 실책으로 2점을 추가했다.

하지만 불발은 진흥고 방망이는 6회 다시 2점을 도망가면서 9-3을 만들었다. 콜드게임까지 1점을 남겨둔 7회, 1사 1·2루에서 진흥고 4번 김도현이 좌측 담장 넘어가는 대회 3호 홈런을 터트리며 12-3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강필상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스타

3점포 등 나홀로 5타점 맹타

진흥고 김도현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했습니다.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무등기에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진흥고의 김도현(18·우투우타)이 성남고를 상대로 3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12-3, 7회 콜드게임승을 이끌었다.

4번 타자 겸 좌익수로 출전한 김도현은 6회말 네번재 타석에서 좌익선상을 꿰뚫는 2루타를 터트리며 타점을 올렸다.

6회부터 마스크를 쓰고 안방을 지킨 김도현은 콜드게임을 확정짓는 홈런도 때렸다.



김도현은 9-3으로 앞선 7회말 2사 1·2루에서 3점포를 쏘아올리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도현은 “커브를 공략해 홈런을 칠 수 있었다”며 “경기 초반 수비가 불안했지만 기동력있는 경기를 펼쳐 낙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을 존경한다는 김도현은 “진흥고가 앞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무등기를 계기로 도약할 수 있게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출전서 6이닝 무실점 패투

장충고 유재협

“전국대회 첫 출전이지만 선배들을 믿고 공격적인 피칭을 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충고의 1학년 투수 유재협(16·우투우타)이 16일 부경고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6이닝 1피안타 1탈삼진 1사사구 무실점의 호투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투수로 출전한 사이드암 유재협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부경고 타선을 압박하며 전국대회 첫 승을 장식했다.

유재협은 “전국대회 첫 선발 등판이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자신있게 던지려고 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슬



라이더를 결정구로 사용해 승부를 펼쳤다”고 말했다.

173cm 60kg의 왜소한 체격의 유재협은 직구구속이 120km 후반에 불과

하지만 정교한 볼 컨트롤과 예리한 슬라이더가 장점이다.

같은 사이드암인 두산 베어스의 고창성을 좋아한다는 유재협은 “앞으로 체력과 체격을 키워 볼 스피드를 더 늘릴 계획”이라며 “아직 어린 만큼 단점을 줄여나가 우리나라 최고의 우완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LPGA 태극 남자군 ‘美 경계령’

크리머 등 합류... 쉐라이트 클래식에서 격돌

순조롭게 항해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군단에 미국 경계령이 떨어졌다.

2010 시즌 초반 LPGA 투어는 정규대회 7개를 치르는 동안 일본과 한국·대만 선수들이 7승을 올리며 아시아 돌풍을 일으켰다.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3승, 서희경(24·하이트·사진)·박세리(33)·유선영(24)이 각각 1승, 청야니(대만)가 1승을 보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주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 베테랑 크리스티 커(미국)가 우승,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17일(이하 한국시각)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켈러웨이 돌체 시부 골프장(파71·6150야드)에서 열리는 쉐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는 미국의 에이스 폴라 크리머가 부상에서 회복해 출사표를 던졌다.

LPGA 통산 8승을 올린 크리머는 지난 2월 혼다PTT타

일랜드 대회 도중 엄지 부상으로 기권한 뒤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을 마치고 시즌 첫 우승을 버리고 있다.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이 맹장염 수술로 이번 대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주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나연(23·SK텔레콤)을 비롯해 위너스 클럽 멤버 유선영·박세리 등이 총출동해 시즌 네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우승이 없는 한국 선수 가운데 김송희(22·하이트)의 활약 여부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송희는 올해 8개 대회에 출전해 한번도 톱10 밖으로 밀려 난 적이 없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1위(69.67타)를 달리고 있는 김송희가 이번에는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대회 우승자 이선화(24)는 4년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연합뉴스

